

주왕산국립공원 관리에 따른 문제점



정석원 | 국립공원관리공단
주왕산사무소장

주왕산국립공원은 기암괴석과 사계절을 두고 각기 달리 빛어지는 절경과 전설이 어우러진 국립공원으로 1976년 우리 나라 12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연간 50여만명이 탐방하고 있으며 주산지 지역 20만명, 약수탕지구 30만명을 포함 연간 약 100만명이 탐방하는 국립공원으로 국가 명승 제1호로 지정된 주방계곡과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과 같은 영화·드라마·광고를 통해 주산지가 널리 알려지면서 주왕산국립공원이 부각되고 있다. 또한 환경부 멸종위기종 II급인 둥근잎팽의 비름, 노랑무늬붓꽃, 망개나무 군락지, 하늘다람쥐 등 많은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는 영남의 영산(靈山)이다.

주왕산국립공원의 탐방객은 가을 단풍철에 연간 입장객의 약 55%, 3개 지구 중 상의지구에 연간 탐방객의 약 95%가 집중하여 계절별 지역별 편차가 크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직원 1인당 공원 관리 면적은 4.88km²이며 영덕지구는 전체 면적의 28.3%(29.9km²)를 차지하고 있는 영덕군과 아울러 21.30km²의 낙동정맥 구간이 공원 구역에 편입되어 있어 공원 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2002년 환경부에서 발간된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국립공원 역할강화 방안」에는 적정 관리 인원을 29명으로 되어 있으나 현재 인원은 22명으

로 7명이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 주왕산국립공원은 상의지구, 약수탕·월의지구, 절골·영덕지구 등 3개 구역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각 지구별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탐방객이 가장 많이 찾아오는 상의지구는 첫번째, 계곡 입구 주 진입로 변에 슬립화된 상가로 인하여 공원미관과 사찰문화 환경을 크게 저해하고 있다. 따라서 2002년부터 미관 저해 시설물 9동중 6동을 철거하였으며 금년도에 4동을 철거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 미관 저해 시설을 정비하기 위하여 2008년도부터 대전사에서 구 공원사무소까지 29동을 정비하기 위한 방안을 공원 관리계획에 반영하였으며, 2008년도에 용역비 4억원을 확보, 철거 및 이주시키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금년도에는 내원마을 3동, 대전사 뒤편 4동을 정비하기 위하여 8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였다. 29동을 정비하기 위한 예산을 산출한 결과 이주단지 포함 94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산정이 되었으나 주민들과 청송군의 적극적인 협조와 역할분담이 필요하다.

두번째, 가을 성수기간 동안 일일 탐방객이 2만여명으로 임시주차장 포함 주차장 수용능력이 1,100대를 수용할 수 있으나 전체 탐방객의 90% 이상

이 상의지구로 편중되고 가을 성수기에 연간 탐방객의 55%가 집중됨에 따라 휴일, 가을 성수기에는 극심한 주차난과 교통 혼잡이 발생하고 있으며 각종 편의시설의 수용 한계를 초과하는 경우가 많아 절골 또는 월외지구로 탐방객의 분산 유도가 필요한 실정이며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절골지역은 공원 외지역에 500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조성토록 협의하고 있으며 약수탕지구는 월외통제소 인근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방안을 강구중에 있다. 이를 통해 낙후된 부동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된다.

약수탕지구는 2001년 공원계획 변경으로 집단시설지구에서 자연마을지구로 변경된 지역으로 40여 개의 식당, 상가가 하천과 약수터를 중심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 동 지구는 자연공원으로서 보전 및 관리하여야 할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이 빈약하고 탐방객 대부분이 주변 상가 이용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토지 대부분이 농경지로 이용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국립공원으로 지정고시되어 시설관리 및 불법행위 단속, 인허가 등 관리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어 공원 관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향후 국립공원 구역 타당성 조사시 공원 구역에서 제척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절골·영덕지구는 최근 "주산지"에서 촬영된 영화, 광고, 드라마 등이 대중매체에 소개되면서 주산지(절골계곡)에 대한 인지도가 크게 상승함에 따라 탐방객이 급증하고 있으나 주차장 등 편의시설이 미조성되어 성수기에는 주차공간이 절대 부족하여 교통 혼잡 상황이 발생되고 있다.

절골계곡과 주산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주차장 및 편의시설물 조성이 필요하며, 주산지 탐방과 더불어 별바위, 절골계곡 탐방이 가능하도록 탐방로 시설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주산지는 수달, 황조롱이, 원앙, 하늘다람쥐, 까막딱따구리 등 13종의 천연기념물이 서식

하고 있어 절골과 주산지를 연계한 테마탐방로를 조성 수준 높은 자연해설을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중에 있다.

주왕산국립공원 구역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는 영덕군은 내기사 지구, 청련사, 우설령지역에 공원 관리 수요가 증가 추세에 있으나 분소가 없어 효율적인 공원관리를 할 수 없는 실정이며, 또한 낙동정맥이 우리 공원내에 21.30km가 통과하고 있어 전문산악인들이 동구간 중주를 선호함에 따라 공단 본부와 사무소 직원이 정밀 실태를 조사하였으며 개방 여부를 검토한 결과 자연 훼손이 가중된다고 판단되어 개방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다만 영덕지구는 영덕분소가 신설되면 탐방로가 공원계획에 반영된 지구가 없어 자연 훼손이 없고 기존에 공원 계획에 반영되었던 내기사~내원마을 구간, 4km 구간에 한하여 금년도에 탐방로를 공원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본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영덕분소가 직제에 반영되면 장기적으로는 동해안(영덕군)을 찾는 관광객에게 주왕산국립공원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탐방 편의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공원관리 최고 전문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주왕산사무소 직원들은 자연 생태계의 온전한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 약력

- 광주경상대 법학과 중퇴
- 태안해안, 계룡산, 속리산과장 역임
- 본부 기획부 기획계장, 덕유산관리과장 역임
- 현 주왕산사무소장